

# 분리매각 vs 통짜매각… CJ헬로 M&A에 알뜰폰 ‘복병’

(헬로 모바일)

SKT·KT, 알뜰폰 분리 매각해야  
‘헬로모바일’ 분리요구 의견서 제출

LGU+, 위법아냐… 문제없다 반박  
정부, 중심잡고 M&A 매듭 지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뇌관으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사업자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유료방송 생태계 생존을 위해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에 관해 사업자 간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M&A 물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지분 인수에 나서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다. SK텔레콤과 KT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위법 사항이 없고 시장 활성화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M&A 심사에 나



모델들이 헬로모바일의 자급제 아이폰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CJ헬로

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인가 조건으로 알뜰폰 사업인 ‘헬로모바일’ 분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80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약 12%를 차지한다. 그 중 CJ헬로의 알뜰폰(MVNO) 헬로모바일의 가입자 수는 77만2000명에 달한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2만3207원이다. 헬로모바일은 국내 알뜰폰 사업자 중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사업인 미디어로그와 합쳐져 가입자 약 110만명이 넘는 알뜰폰 사업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업계는 CJ헬로의 ‘독행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독행기업이란 공격적인 경쟁전략으로 기존 시장질서의 파괴자 역할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해 SK텔레콤의 CJ헬로 M&A를 불

허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알뜰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알뜰폰 ‘맏형’ 격인 헬로모바일이 이동통신사 자회사로 편입되면, 존재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토론회에서 SK텔레콤 이상현 정책개발실 실장은 “‘알뜰폰’이 중요한 이유는 이동통신사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며 (이동통신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라며

“M&A를 통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부문을 인수하면 독립 알뜰폰 업계 상징인 존재와 기능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사업이 그간 역성장했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M&A와는 달리 CJ헬로를 인수한다 해도 합산 점유율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MNO가 복수의 MVNO를 소유할 수 있느냐는 데서도 입장이 갈린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은 MNO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도 MNO 사업자가 복수의 알뜰폰 사업자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도 들었다.

실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Y모바일과 라인모바일을 알뜰폰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KDDI는 UQ모바일과 JCOM 모바일을 자회사로 운영한다. 미국 AT&T도 크리켓(Cricket)과 아이오(Aio)를 알뜰폰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

또 다른 사정도 있다. CJ헬로의 알뜰폰 가입자는 KT 망과 SK텔레콤 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을 인수하면, 추후 CJ헬로 가입자가 LG유플러스 망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타가 가입자를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환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분리 매각을 두고 사업자간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 M&A 매듭을 짓고 글로벌 OTT에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metroseoul.co.kr

## KT “주요 휴가지 5G 서비스 이상무”

해운대·경포대 등 5G 네트워크 구축

KT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국내 주요 휴가지에서도 5G 서비스를 원활히 즐길 수 있도록 5G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KT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강원 오션월드 등에 5G 기지국 구축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셋째 주까지 강원 경포 해수욕장,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충남 대천 해수욕장 등 전국 10대 해수욕장을 비롯해 캐리비안베이를 포함한 4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5G 커버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아울러 내달까지 한솔 오크밸리, 평창 용평 리조트, 양양 쏠비치 리조트 등 강원도 지역의 12개 리조트에서도 5G 네트워크 구축을 끝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KT는 지난 6월 이동 구간에서도 불편 없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호남·영동·서해안 고속도로에 위치한 86개 휴게소 중 64개 휴게소에 5G망 구축을 완료했다. 64개 휴게소 외에도 7월 18개, 8월 4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원활히 5G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디자인·엔진의 진화… 풀체인지급 재탄생

### YG의 카톡

####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사전계약 10일만에 1만대 계약 차로유지보조 완성도 ‘대만족’ 터널 지날 때 알아서 창문 닫아



기아차 K7 프리미어 주행모습.



그릴은 크기가 더 커지고 내부에는 크롬 바가 들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

자유로에 진입한 뒤 ADAS를 활성화시키자 차량에 탑재된 전방 카메라로 실시간 차로를 감지하고, 차선과 전방 차량을 인식한 후 스스로 주행을 이어갔다. 특히 차로유지보조(LFA)의 완성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계기

## KT, 300억 규모 ‘울산페이’ 사업자 선정

KT는 내달 발행되는 연간 300억원 규모의 울산광역시 지역화폐 ‘울산사랑상품권(울산페이)’ 운영대행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역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바탕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 및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해왔다. KT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를 울산시에 제안해 울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KT 지역화폐 플랫폼 ‘착한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불법 현금화와 같은 기존 지류형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울산 지역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QR 결제 시스템과 카드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KT 모델들이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서 울산시 지역화폐 ‘울산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시연하고 있다.

제공한다. 또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금액은 행정부로 실시간 현금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수료도 없다. KT와 울산시는 울산지역 중소상공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울산사랑상품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가맹점 모집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판에 옆 차선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편리했다. 사이드 미ラー의 사각지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됐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터널을 지날 때는 알아서 창문을 닫고 공조시스템을 내기 모드로 전환하는 기술도 편리한 기능 중 하나다.

최고출력 266마력, 최대토크 31.4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V6 람다Ⅱ 3.0GDi 가솔린 엔진이 장착해 묵직한 차체를 가볍게 이끌었다. 특히 고속 주행 중 강력한 가속감은 뛰어났다. 고속 주행에도 외부 소음은 크지 않았다.

기아차는 이전 모델에는 전면과 운전석, 조수석 창문만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사용했지만 K7 프리미어는 모든 창에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주행 연비도 비교적 만족스러웠다.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시승 중간 중간 급가속과 급제동을 했지만 연비는 12.9km/L를 기록했다. 공인 고속도로 연비 12.0km/L를 뛰어넘었다.

/양성운 기자 ysw@